



'어버웃 타임'

'저스틴'

'그렇게 아버지가 되었다'

'엔더스 게임'



# 용의자, 변호인 돌풍 겨누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송강호 주연의 '변호사'와 액션신에서 강점을 보이는 공유 주연의 '용의자'가 쌍끌이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애니메이션 '저스틴', SF 블록버스터 '엔더스 게임' 등 가족용 영화가 새롭게 관객 동원에 나선다. 가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도 기대되는 영화다.

###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가본 곳도 없고, 해본 일도 없는 평범한 남자가 사라진 사진의 미스터리를 찾아 떠내면서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박물관은 살아 있다'의 배우 벤 스틸러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손 펜 등이 출연한다.

'라이프' 잡지사 포토 에디터 윌터 미티는 '라이프'지 폐간을 앞두고 전설의 사진작가가 보내 온 표지 사진이 사라지면서 곤란에 처한다. 당장 사진을 찾아오지 못할 경우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 윌터는 사라진 사진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사진작가를 찾아 떠난다.

그는 바다 한 가운데 헬기에서 뛰어내리기, 폭발 직전 화산으로 돌진하기 등 수많은 모험속에서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등의 대규모 로케이션으로 웅장한 풍광을 담았다. 제임스 서버의 소설 '윌터 미티의 은밀한 생활'이 원작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 ▲저스틴

변호사가 되라는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점의로운 기사를 꿈꾸는 소년 저스틴의 모

### 공유, 티프가이 변신 '용의자' 흥행 탄력

### SF·가족영화 등 8편 다양각색 '장르전'

험담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저스틴의 꿈은 '전설의 기사'로 불린 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기사가 되는 것. 반역자 헤라클리오가 할아버지를 죽이고 전설의 검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스틴은 검을 되찾고 진짜 기사가 되기 위해 물레 집을 떠난다.

마법사 멜섬이데스의 도움으로 지혜의 탑에 도착한 저스틴은 스승을 만나 이론과 검술, 전설의 드래곤과의 대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훈련에 임한다.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 멤버로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를 통해 사랑을 받은 박형식이 주인공 저스틴의 목소리 연기를 맡았으며 '꽃보다 할배'의 이순재, 신구, 박근형도 함께 호흡을 맞췄다. <전체 관람가>

### ▲엔더스 게임

'SF의 바이블'로 불리는 오스 스콧 카드의 동명 원작을 스크린으로 옮긴 블록버스터. 외계 종족 '포미'의 공격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뒤 우주함대를 결성한 인류는 지구를 지켜낼 단 한 명의 영웅으로 뛰어난 지능과 천재적 전략을 지닌 '엔더'를 선택한다. 외로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철저한 훈련과 시뮬레이션 전투를 통해 우주함대 최고의 지휘관으로 성장한 엔더는 인류의 미래가 걸린 최후의 반격을 시작한다.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휴고' 주인공이었던 아사 버터필드가 주인공을 맡았으며 해리스 포드가 그를 전사로 키워내는 우주함대 책임자로 출연한다. <12세 관람가>

### ▲용의자

조국에게 버림받고 가족까지 잃은 채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 최정애 특수요원이 아내와 딸을 죽인 범인을 찾는 과정을 그린 액션물이다. 관객들로부터 자동차 추격신과 액션신 등이 인상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주로 로맨틱 코미디에서 특장을 발휘했던 공유가 첫 액션 연기를 선보이며 연기와 배우 박희순, 조성하, 유다인, 김성균 등이 출연한다. 탄탄한 스토리 라인으로 흥행에 성공했던 '세븐데이즈'의 원선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대리운전을 하며 원수의 행적을 쫓던 동철은 유일하게 가깝게 지내던 박희장의 살해 현장을 목격한다. 그가 남긴 물건을 받게 된 동철은 용의자로 지목돼 피도 눈물도 없이 타격을 쫓는 '사냥개' 민대령 등 모든 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 <15세 관람가>

### ▲변호인

1981년 당시 부산에서 발생한 '부림 사건'을 통해 세무 변호사에서 고문을 받는 지인을 변호하며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대한민국 대표배우 송강호가 절정의 연기력을 보여 주며 고문 경찰로 출연한 광도원, 오달수, 조민기, 이성민, 김영애, 송영창 등 탄탄한 조연진이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아이돌 출신 임시완의 연기도 인상적이다. 직접 시나리오를 쓴 양우석 감독의 데뷔작이다.

30여년간 사건이지만 현재 모습과 오버랩되는 장면들이 많아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개봉 후 500만명이 넘는 관객이 들면서 천만 영화에 도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세 관람가>

### ▲어버웃 타임

'노팅힐' '러브 액츄얼리', '브리짓 존스의 일기' 등에 연출, 각본가로 참여한 리차드 커스티가 메가폰을 잡은 로맨틱 코미디물이다. 모래슬로 탑은 성인이 된 날, 아버지로부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가문의 비밀을 듣게 된다.

여자친구를 만들겠다는 꿈을 위해 런던으로 간 팀은 우연히 만난 메리에게 첫눈에 반하고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특별한 능력을 맘껏 발휘하며 최고의 순간을 보낸다. 하지만 그와 그녀의 사랑이 완벽해 질수록 팀을 둘러싼 주변 상황들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한다. 레이첼 맥아담스, 돌볼 글리슨 등이 출연한다. <12세 관람가>

### ▲설리에 관한 모든 것

20세기 현대인들의 고통을 가장 사실적으로 담아낸 가장 미국적인 작가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 중 13점을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다. 감독은 가공의 인물 설리를 통해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격변하는 미국의 사회상을 담아냈다. 매혹적인 색감의 영상미는 물론, 작은 부분까지 완벽하게 연출한 세트 디자인, 분위기를 더하는 OST가 인상적이다. <15세 관람가>

### ▲그렇게 아버지가 되었다.

6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닌, 병원에서 바뀐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이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른 친자의 가족들을 만나고 자신과 아들의 관계를 돌아보며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현대 일본영화를 대표하는 '아무도 모른다'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작품으로 올해 칸영화제 심사위원장의 영예를 거머쥔 후 산세바스티안영화제, 밴쿠버영화제 등에서 수상했다. 일본 국민배우로 불리는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출연한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해엔  
당신의꿈이  
하늘높이  
날아오르길

지난 한해 많은 사랑 감사드리며, 더욱 새로운 모습,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고객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오년에는 더욱 높은 곳을 바라보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해도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포 24**  
나만의 여행 전국대표예약  
[www.baepyo.net](http://www.baepyo.net)

**JNJ TOUR** | 주 정남진투이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864-3  
대표전화 1577-7616  
장흥해운 오렌지호 발권대리점  
[www.jejuferry.co.kr](http://www.jejuferry.co.kr)

